

第24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出演作品

錦山農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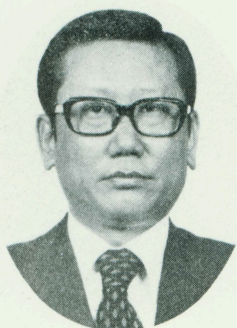


叫：1983. 10. 21~23

天：安東 市民運動場

忠 清 南 道

人 事 말 씀



豊饒로운 가을 하늘 아래 由緒깊은 都市, 이곳 安東의 市民運動場에서 第24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開催케 된 것을 300萬 忠南道民과 더불어 衷心으로 慶賀하여 마지않습니다.

世界속의 韓國으로 뻗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燦然한 歷史와 傳統文化를 發掘 宣揚시켜야 할

무거운 召命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本道에서는 먼 옛날부터 忠節과 人蔘의 고장으로 有名한 錦山地方에 뿌리 내렸던 「錦山農樂」을 여러분 앞에 선보이기로 하였습니다.

左道の 代表的인 農樂이었던 錦山農樂이 歲月의 흐름에 따라 그 가락과 멋이 變形, 消滅되어 감을 안타까히 여겨 갖은 고생끝에 脈을 더듬어 그 眞髓를 되찾게 된 것은 多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農軍과 哀歡을 같이하며 그들의 열과 슬기가 서린 이 錦山農樂을 통하여 和合과 團結心, 나아가서는 先祖들의 興趣와 清純한 實像을 滿喫할 수 있는 좋은 機會가 되리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錦山農樂을 鑑賞하면서 「藝鄉忠南」을 보다 정다움게 理解해 주시고 아낌없는 聲援과 鞭撻이 있기를 바랍니다.

1983. 10. 20.

忠清南道知事 柳 興 洙

錦山農樂의 特徵

錦山은 忠淸, 全羅로 交替되었던 地域이며, 小白山脈에서 分岐되는 蘆嶺山脈의 山岳地帶에 位置한 곳으로서 七百義士의 忠節과 人蔘의 靈德을 낳은 素朴한 農耕人의 故장이다.

「錦山農樂」은 全羅左道八邑(錦山, 珍山, 茂朱, 龍潭, 鎭安, 長水, 雲峰, 求禮)의 最北端에서 뿌리 내린 左道곳으로서 地脈을 따라 南北으로 傳播되면서 湖南右道, 嶺南等地로 派及되고 다시 京畿地方까지 影響을 주며 承脈되었으나 歲月의 흐름에 따라 그 가락과 가림새가 變形되어 가고 있다.

洋樂의 물결이 高潮 되고 農耕生産 手段이 現代化 되는 요즈음 稀少한 技能保有者마저 점차 사라져 우리의 素朴한 가락이 變形 消滅되고 있음을 안타까이 생각하고 이의 發掘과 傳授에 重点을 두어 老少가 同參토록 하였다.

「錦山農樂」은 半農半軍의 農軍들로부터 創出된 가락으로서 全員이 戰笠을 쓰고, 비교적 간소한 服裝에다 빠른 가락과 動作으로 大衆의 行進 音樂과 祝願, 그리고 恨풀이가 昇華되어 윗노리의 技巧가 뛰어나며 밑노리의 굿가락이 淡泊한 것이 그 特徵이다.

錦山農樂의 풀이

은 洞里가 가을 農事(두레) 를 끝내고 壯元머슴을 뽑아 祭天 感謝와 慰勞잔치를 베풀면서 한마당 굿이 벌어진다.

외마치, 두마치, 세마치.....열두마치와, 길굿, 문굿,푸마시굿, 오방진굿, 호호굿, 자진호호굿, 갈림굿, 각진굿, 자진각진굿, 홀영상, 겹영상, 덕석마리, 도둑잡이, 돌굿, 노래굿, 개인노리, 파송굿 등

制限된 時間 關係로 위의 판굿중에서 그 일부를 엮어 선을 보이하고자 한다.

• 외마치 풍년길굿

장원 머슴을 소 또는 사다리에 태워 용당기와 농기, 나팔, 무동 등을 앞세우고 左道 특유의 길군악(행진굿)에 맞추어 덩실 덩실 춤을 추면서 소고가 앞을 서고 쇠가 뒤를 따르는 逆進방법으로 주인집에 들어간다.

• 문 굿

“주인 주인 문열소, 마당간데 불농소”이러한 口音의 가락을 치면서 逆進했던 行進이 정상으로 돌아가 쇠가 앞장을 서 마당에 들어가 판굿을 친다.

• 외 마 치

자진머리에 해당하는 박자로서 左道굿에서만 볼 수 있으며 가락이 경쾌하고 흥겹다.

• 두 마 치

휘몰이에 해당하는 가락으로서 아주 빠르며 右道의 두마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마치굿의 맺임 가락으로도 활용한다.

• 세마치~여섯마치

세마치...여섯마치 까지 엮어져 연속적으로 변화를 이르키며 차분하고 무게 있는 가락이 이어진다.

• 일곱마치

한 장단에 징을 일곱번 치며 左道농악에서만 갖고 있는 특유한 가락이다.

• 여덟마치~열두마치

여덟마치는 일곱마치의 변형으로 된 가락이며 한박자에 일곱번의 징을 친다. 마치가 더해짐에 따라 변화 무쌍한 가락으로 빠르게 이어지는데 열두마치는 징을 열두번 친다.

• 품아시굿

팽과리를 서로 번갈아 치며 장고와 쇠군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한다. 농사 품아시 일을 상징하는 곳이다

• 오방진굿

靑, 白, 赤, 黑, 黃色 깃발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으로 나누어 잡귀를 몰아 내는 곳이다.마지막에는 중앙으로 모여서 명석말이를 하고 다시 풀어 나온다.

• 호호굿, 자진호호굿

진영에서 진군을 점검하는데 서로 부르고 대답한다.

부르는 소리는 “호호”, 대답하는 소리는 “허허”, 단결심을 다짐하는 진 풀이다.

• 갈 립 굿

호명을 마친후 쇠와 북, 장고가 서로 갈라지며 진을 다듬는다.

• 각정굿, 자진각정굿

상쇠와 수장고가 마주보며 만났다가 헤어지며 각기 반대 방향으로 가서 서로 엇갈리는 “가새치기”를 한 다음 다시 서로 만나서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진풀이다.

• 흘영상, 곁영상

“숫작다 숫텅텅 도리깡 도리깡깡”(새(鳥)와 話答을 하는 내용) 쇠잡이 들이 번갈아 치며 놀다가 장고와 마주치면서 흥을 돋는다. 左道의 특수 가락이다.

• 개 인 놀 이

채상노리, 장고노리, 열두발 채상 등 순차적으로 놀이 마당이 벌어진다. 윗노리의 발달이 특이하고 장고가락은 담백한 것이 특색이다.

• 파 송 굿

적진을 섬멸하고 끝냄을 알리는 굿이다.

“암독개비 숫독개비 아들낳고 딸낳고 콩꺼자 콩꺼자 두렁넘어 콩꺼자 별따자 별따자 하늘 잡고 별따자.

갈리소 갈리소 구경꾼들 갈리소”

이상의 대사와 가락을 치며 원진(原進)하면서 덕석말로 끝을 맺는다.

錦山農樂의 發掘意義

農樂은 우리 民族의 歷史와 哀歡을 같이 하면서 鄉土民의 信仰, 團
合, 協和, 國防, 祝祭 등 鄉土的 農民樂으로 君臨해 왔다.

이러한 農樂이 방방곡곡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그것이 精神的
으로 隣保相助하고 老少同樂하며 바램(願)과 恨풀이를 바탕으로 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農樂은 民族의 얼과 멋, 그리고 슬기가 복합되어
創出된 綜合的인 民俗藝術이다.

祖上의 얼과 슬기가 담긴 傳統民俗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우리
忠淸南道에서는 各市郡마다 1個校씩 17個 學校를 民俗示範學校로 指
定하여 育成하고 있으며 그 동안 9個 農高에 農樂部를 設립하여 數
百名의 傳受者를 배출한 바가 있다.

左道農樂의 脈을 이어온 韓奎東, 金洙東, 崔相根, 韓判玉 諸氏는 他
界하시고 단 한분의 기능보유자 金鳳烈(70세) 할아버지와 이분한테
師事한 鄭寅三氏가 錦山農樂을 發掘하여 이고장 젊은이들에게 脈을
이어주게 된 것은 傳統民俗 傳承의 큰 수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번에 선보이는 錦山農樂은 技能保育者, 一般農民, 젊은 傳受者들
이 한 자리에 모여 一體感속에서 老少가 同參하고 同樂하는 傳承策
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考 證：林 允 洙(大田市立燕亭國樂院長)
 金 鳳 烈(左道農樂技能保有者)
總指揮：盧 容 愚
總指導：鄭 寅 三
指 導：孫 容 達